

좌석 4개 아기자기한 '동네 영화관' 아십니까

광주 북구 동네영화관 '망월상영관'

한성우씨 한의원 개조 작년 문 열어
작은 도서관 갖춘 문화 사랑방으로
사람 많으면 바닥에 앉아서 관람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작품 상영중



동네영화관 '망월상영관'은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곳으로 좌석은 딱 4석이다.



한의원을 개조해 만든 망월상영관 외관.



망월상영관을 운영하는 한성우씨.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는 세계 우수 단편영화들의 즐거운 축제다. 올해로 벌써 13번째를 맞은 영화제는 서울에서만 관람할 수 있어 아쉬웠다. 영화제 측은 지역 영화팬들에게도 좋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지역 순회전을 열고 있다.

올해 역시 '좋았다니, 다시 한번!'이라는 타이틀로 지방 순회 상영을 진행중이다. 보도자료에 적힌 광주 상영관을 살펴보니 낯선 공간이 눈에 띄었다. 동네 영화관 '망월상영관'이다.

광주시 북구 경원사 초입에 자리한 '망월상영관'은 동네 영화관이다. 한의원으로 쓰던 곳의 외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중이다. 유리창에 한의원 로고가 여전히 붙어 있어 한의원인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건물 외관에서 눈에 띄는 'Before I Die I Want To' 프로젝트다. 2011년 미국뉴욕리안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뜻 그대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설치 작품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한약재를 담아놓는 약재 진열장이 눈에 띈다. 지금은 커피 등 다양한 물품을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중이다. 벽면에 영화 포스터도 걸려 있다. 오른쪽 방이 상영관이다. 한쪽 벽면을 짙은 스크린과 일명 회장님 의자로 불리는 편안한 의자가 눈에 띈다. 좌석은 4석. 사람이 많을 땐 바닥에 앉아서 관람할 수도 있다.

상영관을 오픈한 이는 한성우(34)씨다. 2014년부터 6월부터 상영관을 준비해 지난해 문을 열었다. 동네 영화관으로 유명한 서울 육인영화관을 찾았던 게 계기가 됐다. 육인동 가정집에 문을 연 육인영화관은 다섯 석을 갖춘 아주 작은 영화관이다.

"잡지에서 우연히 육인영화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직접 찾아갔어요. 가정집에서 웅기종기 모여앉아 영화를 보는 게 정말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 때 아시아국제 단편영화제 작품을 봤는데, 나도 저걸 상영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광주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영화관을 운영하면 재밌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상영관을 찾는 이들에게

이곳이 놓이더라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상황들이 딱 맞았어요."

한의원은 누나가 운영하던 곳으로 1년간 비어 있는 공간이었고, 프로젝트와 스크린은 친구가 무료로 대여해 줬다. 이민간 가족이 남겨준 책으로는 작은 도서관을 꾸몄다. 책 읽고 싶은 사람은 커피 한잔 마시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편안하게 앉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비디오방도 마련했다. '자전지 도둑' 등 다양한 작품이 구비돼 있다. 최근에는 익산에 거주하는 이의 전화를 받고 비디오를 몽땅 가져오기도 했다.

지나해 소원대로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상영작을 선보였던 망월상영관은 독립영화를 중점적으로 만날 수 있다. 오동석 감독의 경우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촬영감독, 배우, 제작자와 함께 상영관을 찾은 오감독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

광주전남 지역 독립영화 감독들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어두고 있다. 지역 영상 관련학과 졸업 작품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의 여건 상 상영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오후 1시~6시)에만 문을 연다.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를 많이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양림동이 뜨는 것처럼, 우리 상영관이 '망월동 문화동네'의 첫발을 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망월상영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에서는 '아시프 화제작전'(4편·80분), '발칙한 상상력전'(4편·70분), 'Life is short'(8편·55분) 등을 만날 수 있다. 지난날부터 관객을 만나고 있으며 7일과 8일, 14일과 15일 하루 두 차례(오후 1시·3시) 상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isf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관람. 망월상영관(blog.naver.com/mwthreatre) 문의 010-7103-27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동철 작가 10년만의 광주 귀향전

30일까지 수완재활요양병원 재북미술관

현송(玄松) 신동철(申東哲) 작가가 30일까지 수완재활요양병원 내 재북미술관에서 개인전 '선인들의 숨결을 찾아서'를 연다.

한국화를 전공한 신 작가는 한지와 먹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에서 나는 흙과 재료를 섞어 독특한 화면을 연출한다. 과감하게 자연을 재구성하고 주관적 해석을 곁들여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10년 만에 갖는 귀향전으로 주로 한국 소나무와 선인들의 숨결, 그리고 느낌의 미학을 화폭에 담은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소나무는 한국 정신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작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대 곁에 있어서 좋다', '울고 웃고 춤추다' 등 다양한 자태를 보여준다.

신씨는 작품을 통해 소나무에 대한 단순한 예찬을 떠나 자연이 지닌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신씨는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2010)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 제주 등 전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한국미술 이사, 서울미술 회원, 대자연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958-117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제주에서 한라까지'



10년간 가장 사랑받은 어린이 책은?

슈스타의 '사랑해 사랑해' 1위 국내 책은 권정생의 '강아지똥'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들은 고민에 빠진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어느 곳에 데리고 갈지 결정하기가 난감하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은 어린이 책은 어떤 책일까?

교보문고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간 자사 유아 어린이 분야 도서 누적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비나넷 로제티 슈스타의 '사랑해 사랑해'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와 다다 히로시의 '사과가 쿵이 차지했다'. 국내 책으로는 권정생의 '강아지똥'이 4위에 올랐으며 그림책 작가인 백희나의 '구름빵'은 8위를 차지했다. 최숙희의 스테디셀러 '팬클럽'도 10위에 랭크됐다.

전반적으로 외국 작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9위), '돼지책'(11위)도 순위에 올랐다. 최근 한국어판이 100쇄를 돌파한 엘빈 브룩스 화이트의 '살투의 거미줄'도 15위에 올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도시농업 전성시대

특집

충만한 도시농부들의 경작본능
지친 일상 위로하는 치유의 가드닝
박희란 씨의 베란다 텃밭 가꾸기

5.18기획

세월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노래, 민중가요

'광주'로 정리한 민중가요 100곡
공감의 경향이 필요한 광주 트라우마

2015광주세계 U대회 그후

광주유니비사이드 D+300일,
광주에 남긴 것

문학 화제 맨부커상 최종후보 올라 영미권서 호평받는 소설가 한강

남도 美味樂 **고흥**
거침없는 푸른 남해의 흥광
우주를 배우고 즐기는 우주항공축제

예향 초대석

운명 잃는 음악평론가 강현

"타고난 기질과 특성 알면 삶의 방향이 보이죠"

남도의 장인들⑥
5대, 70년을 이어온 전통 참빗장 고행주

사람이 브랜드다⑦
생명과 창조 '시메트리' 마산 & 조각가 문신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세로토닌'적 삶 강조하는 힐링 전도사 이시형
함께 밥먹는 '빨간냄비' 캠페인 펼치는 박재식
부활하는 '패트리엇' 광주FC 정조국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눈부시다, 유적도 바다도 멕시코

전북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①
정음 권번문화예술원 '예가인'

문화 화제
아프리카 소나조각전 여는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스타 데이트
"피란민장 신석호는 정말 하고 싶었던 역할"
SBS '편안라'로 드라마 복귀한 배우 지성